

2016

가을 제62권 3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Cameroon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성경을 보내는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150여 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성서공회들을 위하여
성경 제작, 출판,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교실 프로그램과 에이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www.bskorea.or.kr



Contents

02 포토에세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

04 커버스토리

테러의 위협으로 고통 받는 카메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08 후원 교회

- 콩고민주공화국에 붙어 성경,
키투바어 성경 7,036부를 보냅니다!
-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 5,000부를 보냅니다!

12 성경 보내기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51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4 현장 이야기

- 후원회원, 스와질란드 사역 현장에 다녀오다!
- 남수단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8 말씀을 만나다

성경 속의 놀라운 일들 - 숫자

20 세계성서공회 소식

우리의 희망은 늘 하나님께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22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23 KBS 단신

- 전 세계에 성경전서가 3,400만 부 이상 반포되다
- 전시설 이전 안내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5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8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6년 9월 30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험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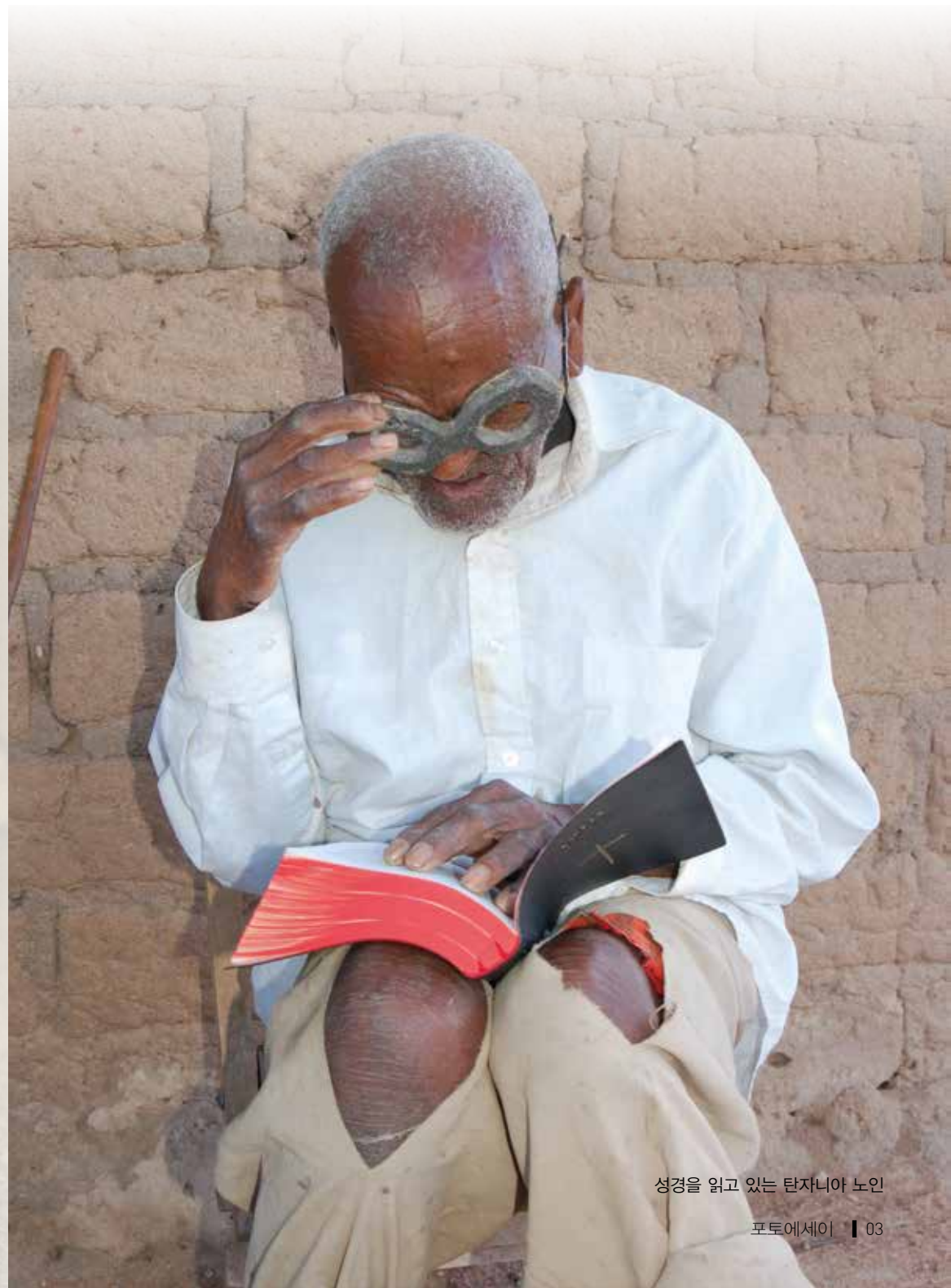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주면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44)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야운데 고아원 어린이들

테러의 위협으로 고통 받는 카메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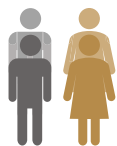
위치 아프리카 중부 기니만 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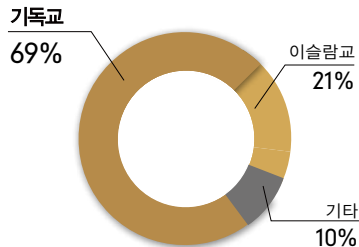
언어 불어(공식), 영어(공식) 외



인구 약 2,300만 명



종교



Cameroon

카메룬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위협

아프리카 중부 기니만에 위치한 카메룬은 서쪽으로 나이지리아, 동쪽으로 차드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쪽으로는 콩고, 가봉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종족 구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 교회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카메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참담하다.

카메룬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 각각의 전통적인 샤머니즘 신앙을 굳게 믿고 있고, 미신적 행위들이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슬람의 공격적인 포교활동이 카메룬 교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카메룬 내에서 이슬람교는 약 21%를 차지하지만, 인접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된 이슬람 무

장단체인 보코하람의 크고 작은 공격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 지역 행정 관리들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카메룬성서공회 또한 보코하람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위험에 빠진 어린이와 청소년,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카메룬 교회를 향한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미래를 이끌어 갈 14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메룬 인구의 40%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테러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탈레반이라 불리는 보코하람은 어린이와 여성을 납치한 후 이들을 병사로 만들거나 강제 결혼을 시킨다.



보코하람의 테러로 폐허가 된 마루아(Maroua) 지역의 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카메룬성서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카메룬성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영적 양식을 채워주기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카메룬성서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0대 어머니들과 12~26세 연령의 매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에스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치며, 상담과 함께 성경 공부 교실을 운영하여 어린 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다.



에스더 프로젝트에 참여한 카메룬 여성들

모국어 성경 봉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카메룬 소수 부족 사람들

지난 5월, 소수 부족의 하나인 무수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첫 번역 성경을 받았다. 보코하람의 테러 위협 속에서도 무수굼 부족은 몇 개월 동안 조심스럽게 성경 봉헌식을 준비하였고, 성경이 마을에 도착하자 무수굼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후 6월에는 나이지리아 국경과 가까운

위험 지역인 모고데 인근 산악 지대에서 캡시키 첫 번역 성경전서의 봉헌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봉헌식을 위해 카메룬성서교회는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고,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배치된 군인 250명이 봉헌식에 함께 하였다.

봉헌식이 끝난 후 캡시키 성경 번역 위원회

의장인 파부(Faveu)는 “이 성경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매일 매일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바로 성경을 펼쳐 읽었다. 모고데 시장은 “캡시키어 성경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첫 번역된 성경을 펼쳐보는 캡시키 성경 번역 위원회 의장(오른쪽)

“우리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진 카메룬 사람들 특히 상처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이다. 현재 많은 카메룬 사람들이 성경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카메룬성서교회는 성서 번역 및 보급과 같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사역을 지속하려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테러 위협으로 성경 전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보급할 성경의 재고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카메룬성서교회가 10년

간 진행해 온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그램도 현재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하는 카메룬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의 보급이 활성화 되도록 돕는 일이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보내는 성경 한 권은 카메룬 사람들과 카메룬 복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



★ 후원문의 ★

카메룬에 보내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매월 10만 원이면 20명, 1만 원이면 2명의 카메룬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메룬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3

콩고민주공화국에 불어 성경, 키투바어 성경 7,036부를 보냅니다!

— 교문감리교회, 캐나다 크리스찬월드 기독교신문,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2016년 6월, 교문감리교회 최대원 원로목사, 캐나다 크리스찬월드 기독교신문,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한 불어 성경 5,324부, 키투바어 성경 1,712부, 총 7,036부를 기증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증한 <불어 성경>

본 공회는 지난 호 “오랜 내전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콩고민주공화국”(〈성서한국〉 2015년 봄, 4-7페이지 참고)과 광고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이 필요한 상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를 본 교회 및 단체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하였고, 그 열매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증식은 교문감리교회,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캐나다 크리스찬월드 기독교신문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교문감리교회의 최대원 원로목사는 본 공회의 광고를 본 후 성경 보급의 필요성을 깨달아 후원을 결심하였고, 지난 해 성경 기증을 위한 헌금을 보내왔다.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을 하와이의 한인 교회들에게 알려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캐나다에서 발행하는 크리스찬월드 기독교

신문은 “보내자 성경! 콩고민주공화국에 \$10이면 2권의 성경책을 보낸다.”는 프로젝트를 주관하여 캐나다 한인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본 공회로 보내왔다. 특히 크리스찬월드는 1만 불을 목표로 하던 중 9,065불이 모금된 상황에서, 캐나다의 한 일용직 직원이 자신의 주급 750불 중 500불을 보내왔고, 이어 남은 500불도 헌금하여 목표하는 바를 채워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증식은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회계인 장세현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장 목사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

교문감리교회의 최대원 원로목사는 ‘핵심 선교 사역(마 24:14)’이라는 제목

으로 설교를 하였다. 최 목사는 “주님께 서 가장 기뻐하시는 핵심적인 선교 사역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더 나아가 나라까지 바뀌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넘치는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였다.

본 공회 호재민 부총무는 인사말을 통하여 “해외 성서공회의 후원으로 처음 한글 성경을 제작할 때, 첫 번째로 들어온 헌금이 스코틀랜드의 한 고아원 연주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지고 한국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을 실으며 크리스찬월드의 장현일 목사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



기증식에 함께한 교문감리교회,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캐나다 크리스찬월드 기독교신문 외 본 공회 참석자들

씀을 통해 변한 것처럼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마음, 모든 것을 모아서 콩고민주공화국에 보냅니다.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

이번에 기증 받는 콩고민주공화국은..



수많은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가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본 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는 내전 지역에 회복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회복을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이 필요하지만, 내전으로 인해 대다수의 산업 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성경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 5,000부를 보냅니다.

— 남선교회전국연합회(예정통합)

2016년 8월 16일 오전 11시, 본 공회 반포센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최내화 장로)가 쿠바를 위한 스페인어 성경 5,000부를 기증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증한 <스페인어 성경>

남선교회전국연합회(예정통합)는 2016년 중점적인 선교활동 중 하나로 성경 기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본 공회를 통해 쿠바에 성경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외 성경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 5,000부를 기증했다.

기증식에서 임은빈 목사(동부제일교회 담임)는 ‘말씀(행 6: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그들의 발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내는 이 성경이 쿠바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였다.

본 공회 호재민 부총무는 인사말을 통하여 “최초의 한글 성경은 해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인쇄되어 한반도에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에 빛진 우리가 이제는 받은 은혜를 쿠바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전달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이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쿠바성서공회 알라인 몬타노 총무는 “쿠바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입니다. 수많은 쿠바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쿠바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성경 증정 - 최내화 장로, 호재민 부총무



기증식에 참여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원들과 본 공회 진흥부 문서선교 자원봉사자들



이번에 기증 받는 쿠바는..

남미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래를 주도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쿠바 사회가 새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1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이 부족하다. 그나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너무 낡았고, 글씨도 작아서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쿠바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50%에 육박하는 쿠바 가정의 이혼율은 쿠바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쿠바성서공회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고, 젊은이들과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0만 부의 성경 보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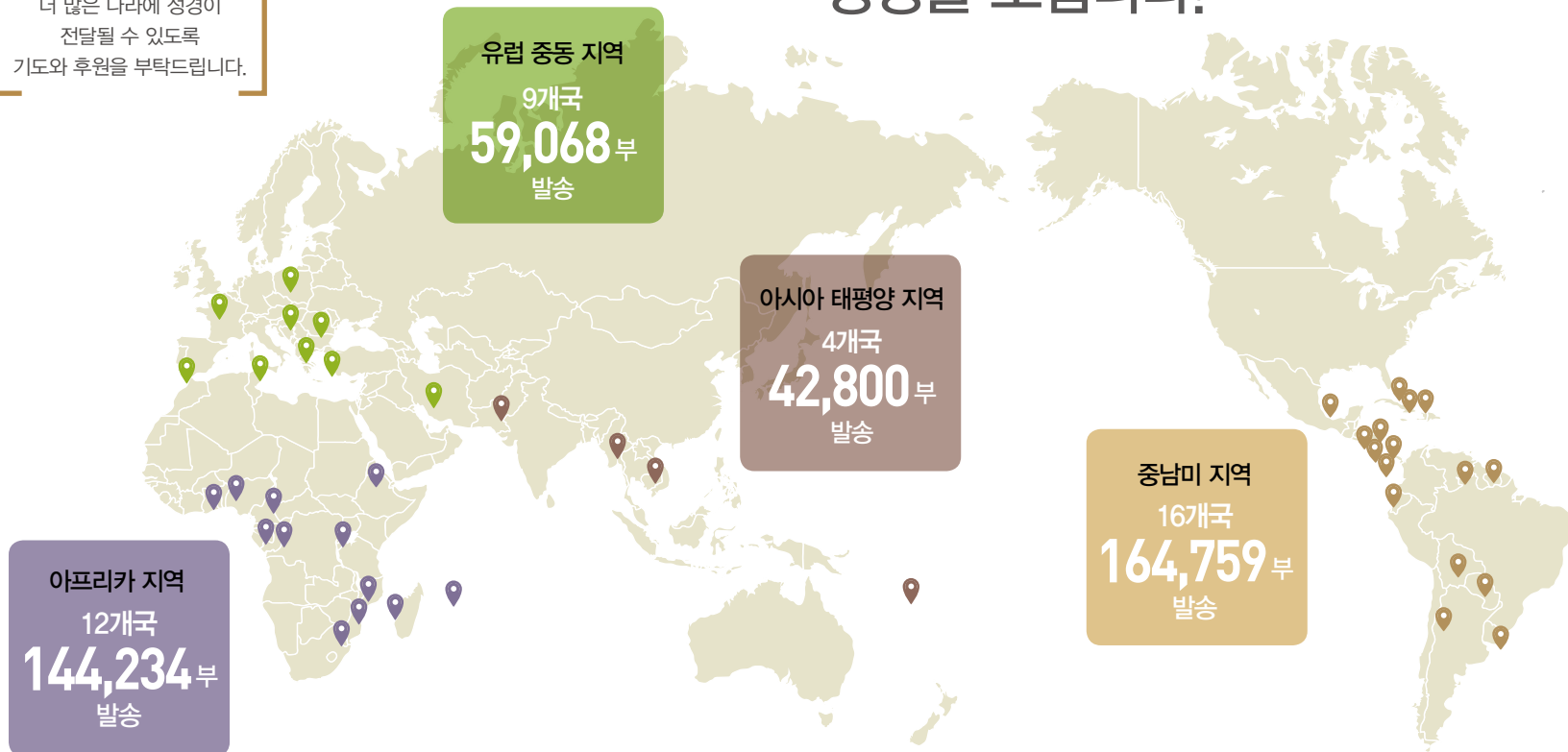


성경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기 전에 성경 받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6. 8. 29 기준)

아직 성경이 발송되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나라에 성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51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폴란드



크로아티아



가봉



가나



미얀마



파키스탄



수리남



우루과이

유럽 중동 지역 10개국

그리스 📍 크로아티아 📍
러시아 📍 터키 📍
루마니아 📍 포르투갈 📍
슬로베니아 📍 폴란드 📍
이란인 디아스포라 📍 프랑스 📍

아프리카 지역 16개국

가나 📍 스와질란드 📍
가봉 📍 에티오피아 📍
르완다 📍 우간다 📍
마다가스카르 📍 카메룬 📍
말라위 📍 케냐 📍
모리셔스 📍 콩고공화국 📍
모잠비크 📍 탄자니아 📍
부르키나파소 📍 토고 📍

아시아 태평양 지역 8개국

남태평양 📍 방글라데시 📍
네팔 📍 캄보디아 📍
라오스 📍 파키스탄 📍
미얀마 📍 파푸아뉴기니 📍

중남미 지역 17개국

니카라과 📍 아르헨티나 📍 칠레 📍
멕시코 📍 아이티 📍 코스타리카 📍
베네수엘라 📍 에콰도르 📍 쿠바 📍
볼리비아 📍 엘살바도르 📍 파나마 📍
서인도제도 📍 온두라스 📍 파라과이 📍
수리남 📍 우루과이 📍

후원회원, 스와질란드 사역 현장에 다녀오다!



성경과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스와질란드 초등학교 학생들

본 공회의 후원회원인 정선주 집사(부산 호산나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성경 보내는 사역에 참여하였고, 지난해에는 스와질란드성서공회에 20,200부의 성경을 기증하였다.

지난 7월, 본 공회는 정선주 집사의 가족들(언니 정선자 목사, 자녀 박지혜 양)과 함께 스와질란드성서공회의 사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스와질란드

스와질란드는 전체 인구 140만 여 명 중 약 58%가 25세 이하이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에이즈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스와질란드성서공회가 돕고 있는 학교 중 한 곳은 전체 학생의 98%가

고아이다. 이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스와질란드의 많은 가정들은 열악한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가난과 절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극빈 가정에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는 박지혜 양(가운데)과 정선자 목사(오른쪽)



스와질란드성서교회 직원들과 본 공회 일행

스와질란드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다

우리 일행은 수도 음바바네에서 한 시간 남짓 지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였다. 박지혜 양은 학생들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어린 가장들이 사는 극빈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스와질란드 총무는 빈곤 가정들을 함께 돌아보며 스와질란드의 어려움을 전하였다. “스와질란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에이즈입니다. 스와질란드 어린이들 약 30만 명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일찍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극심한 가난입니다. 약 69%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의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남아공을 비롯

한 여러 나라에 이주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소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마약을 접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을 이야기하고 마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스와질란드 성서공회의 노력

스와질란드성서공회는 2007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꾸준히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 스와질란드성서공회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 소망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미션 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스와질란드성서공회의 이사들과 성서 공회 직원들은 “이 소중한 발걸음이 스와질란드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에이즈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다. 🌐



■ 남수단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남수단은 22년 동안 이어진 내전 끝에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이후 종족 간의 갈등으로 또다시 내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경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내전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당장 하루의 끼니도 책임질 수 없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수단성서공회는 내전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성경으로 인해 성경을 보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본 공회를 통해 7,200부의 성경을 받은 남수단성서공회 총무는 성경 기증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남수단의 상황을 소개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

성경을 기증해 주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할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사랑과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수단이 처해있는 상황 전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수단성서공회 직원들의 일부 가족들은 내전으로 인해 이웃 나라의 난민 캠프로 옮겨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직원들과 가족들은 무사히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간다, 케냐,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수도인 주바 지역은 사실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성서의 반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재고는 6월에 거의 바닥을 보였고, 새롭게 올 성경들은 주바 지역을 통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에 몽바사 지역에서 성경을 싣고 오던 화물차가 내전으로 인해 주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들을 우간다에 거의 2달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기도로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싣고 오는 화물차가 음식을 운송한다고 생각하고, 성서공회 사무실까지 따라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주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나 비싸서 하루에 저역 한 끼만 먹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내전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대해 축복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나요?
고대 사람들에게 이 숫자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1

유일함 또는 하나 됨을 뜻해요.

- ▶하나님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선포하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언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에베소서 4장 4-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알고 있었나요?

'헥사코시오이 헥세콘타 헥사포비아'는 666이라는 수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여섯 번 말해보세요.)

3

완전함을 나타내요.

- ▶요나선지자는 물고기에게 삼켜진 후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어요(요나 1:17-2:10). 먼 훗날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묻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을 얘기하셨어요(마태복음 12:40).
-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마태복음 28:1-10; 마가복음 16:1-8; 누가복음 24:1-12; 요한복음 20:1-10; 고린도전서 15:4).
-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마태복음 26:69-75; 마가복음 14:66-72; 누가복음 22:54-62; 요한복음 18:15-18, 25-27).
-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세 번 물으셨어요(요한복음 21:15-19).
-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에 있는 세 가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고린도전서 13:13).



4

1년 사계절과 네 가지 바람과 더불어 창조된 세상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요.

-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은 비손, 기혼, 히데겔(티그리스), 유브라데(유프라테스) 등 네 개의 강으로 나뉘었어요(창세기 2:10-14).
- ▶구약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는 네 '생물'을 보았어요(에스겔 1:4-14).
- ▶신약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에스겔이 본 것과 비슷한 네 '생물'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어요(요한계시록 4:6-8). 날개가 달린 이 네 생물은 네 명의 복음서 저자,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연결되어 있어요.



7

완성과 완전을 나타내요.

- 어떤 문화는 이 숫자를 성스럽게 여겨요.
-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 일곱 번째 날에 쉬셨어요(창세기 2:2-3).
- ▶창조 이야기에 의하면 7은 한 주간에 들어 있는 날의 수예요(창세기 1:1-2:4).
- ▶노아는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희생제물로 쓰일 7쌍의 동물과 모든 종류의 새를 7쌍씩 가져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창세기 7:2-3).
- ▶애굽 왕은 꿈을 두 번 꾸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는 건강한 소 7마리가 나온 뒤에 약하고 못생긴 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7개의 이삭이 나온 뒤에 더운 바람에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창세기 41:1-36).
- ▶예수님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 묻자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마태복음 18:22).
-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나와요(요한계시록 1:4).



10

때로 완성을 나타내요. 3+7=10 이니까요!

- ▶창세기 이야기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10번 나와요(창세기 1:1-31).
-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출애굽기 20:1-17; 신명기 5:1-22).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은 아마도 '민수기' (영어로 "Numbers")가 단지 숫자들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민수기에는 숫자 외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숫자들을 말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셧는지 알 수 있어요.

12

완전과 완성을 나타내요.

- ▶하나님은 이스마엘(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 12 두령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창세기 17:20).
-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었어요(창세기 35:23-26; 49:1-28).
-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마태복음 10:1-4; 마가복음 3:13-19; 누가복음 6:12-16).
-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중에는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이름을 따서 지은 12개의 문이 있었어요(에스겔 48:30-34).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에서 예루살렘은 12가지 보석으로 된 12개의 기초석 위에 세워졌고, 12개의 진주 문이 있었어요(요한계시록 21:11-2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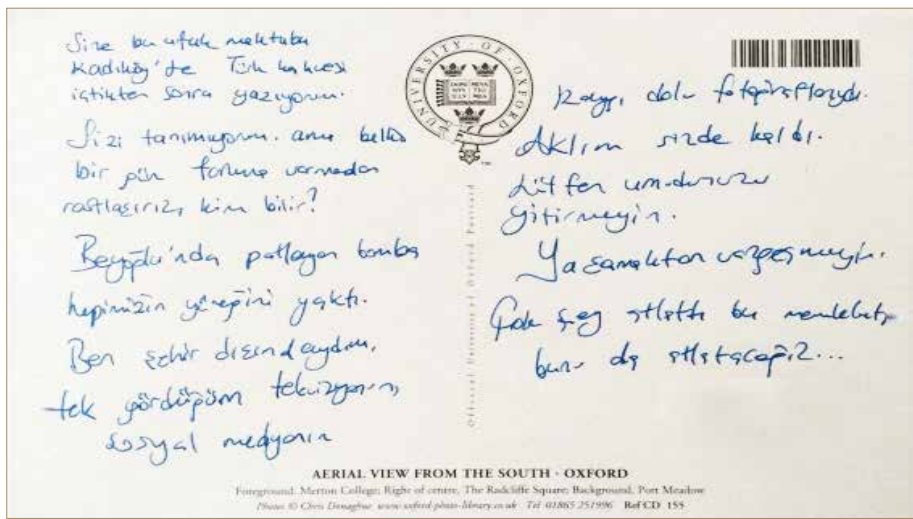
정해진 끝이 있는 긴 시간을 나타내요. 40은 또한 중요한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요.

-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창세기 7:4, 17-18).
- ▶모세는 40일 밤낮을 시내 산에서 머물렀어요(출애굽기 24:17-18).
-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 다녔어요(민수기 14:33-34).
- ▶다윗 왕과 아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각각 40년씩 다스렸어요(사무엘하 5:4-5; 열왕기상 11:42-43).
-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마태복음 4:1-11).



우리의 희망은 늘 하나님께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 터키성서교회

최근 유럽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테러 사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종교 그리고 인종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서 보급 사역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테러 이후 터키성서교회 앞으로 온 엽서

지난 1월과 3월 그리고 6월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의 공포 속에서도 터키성서교회 타마르 카라수 총무와 직원들은 “삶의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터키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브뤼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엽서는 우리 성서교회 사무실 문 앞에 놓여있던 엽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고,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스티쿨랄*에서 폭탄이 터진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도시 밖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SNS를 통해 폭탄이 터졌던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이 됩니다.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간 많은 안 좋은 일들을 겪어 왔습니다. 전 세계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늘 하나님께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이스티쿨랄 : 터키 이스탄불 베요글루 지구에 있는 유명한 거리 중의 하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성서공회는 불우한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문자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약 1,520만 명의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이 문자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가 글을 깨우치고 복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집트



이집트 카이로의 아인 샴스라는 지역은 수 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매우 가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성서공회는 이곳에 계속 기독교 서점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서점이 어둠 속에서도 복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지난 7월, 방글라데시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일어난 후 또 한 차례의 테러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며, 테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서공회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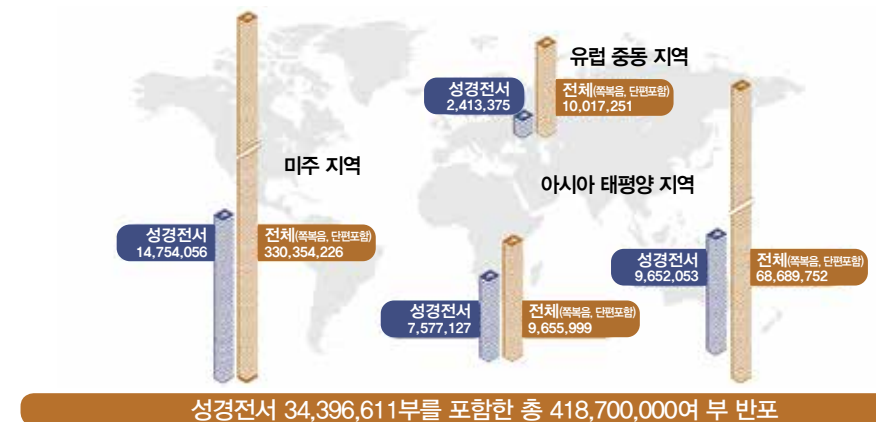
성서공회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분들은 메일(communications@bskorea.or.kr) 또는 전화(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로 연락해 주시면, 성서공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전서가 3,400만 부 이상 반포되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의 '2015년 성서 반포 보고(The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5)'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성경전서가 2014년보다 약 1.5% 증가한 약 3,439만 부가 반포되었으며,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1,870만여 부의 성서가 반포되었다.

[2015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출처: 2015년 성서 반포 보고 (The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5),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

세계 성서 반포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지역은 유럽과 중동 지역이다. 전쟁, 폭력 및 갈등이 빈번했던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특히 내전으로 인해 난민들이 가장 많았던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및 터키의 성서 반포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88%가 증가하였다.

시리아성서공회 총무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성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시리아의 성서 반포량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각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희망을 잃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

고 말하면서 성서 반포의 중요성을 전하였다.

미주 지역에서는 약 3억 부 가량의 성서를 반포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450만 부 가량의 성경전서를 지속적으로 반포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성서 반포수가 2010년보다 36%가량 증가하여 2015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성서 반포율이 가장 낮지만, 반포하는 성서 품목 중 3/4 이상이 성경전서이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서 반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약 3,080만 부, 필리핀은 1,550만 부의 성서를 반포하여 2015년 자체 최고 성서 반포량을 달성하였다.

전시실 이전 안내



본 공회 성서전시실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서초회관 4층에서 운영했던 성서전시실은 본 공회 반포센터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성서전시실에는 전 세계 수백 개의 언어로 된 성경, 히브리어 성서, 그리스어 성서와 칠십인역, 라틴어역, 영어, 독일어, 중국어 등 주요 역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남, 여전도회 등 모든 연령층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86번지

▶ 약도

- 1) 대중교통 이용시: 서초구민회관(양재역 7번 출구) 앞에서 버스 1560번 승차, 공세동 한일초등학교 하차
- 2) 승용차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신갈오거리에서 반포센터까지 약 3.3km(고매리 고가도로 밑에서 좌회전)

▶ 방문 가능 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단체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02-2103-88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한 권의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신청인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이메일주소	☐ 소식지 이메일 요청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전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1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 매월 20,000원(성경 4권)	은행명	계좌번호
	☐ 매월 10,000원(성경 2권)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전화
	☐ 매월 5,000원(성경 1권)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매월 원(성경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업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를 위해 동의함에 체크해주세요!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예금주: _____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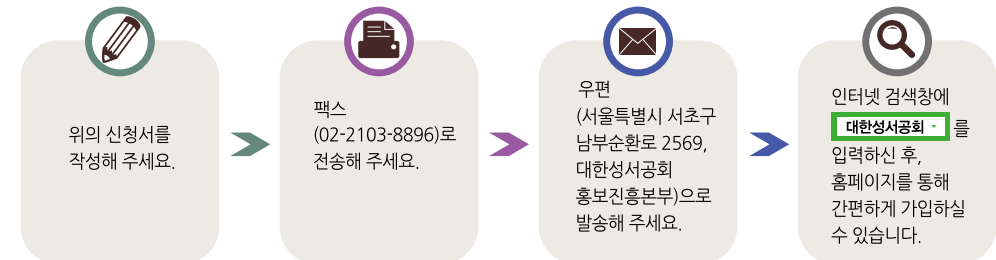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 르완다는 성경을 기다립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약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남긴 대량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엔 가족, 친구, 이웃이 죽어가던 모습이 남아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 적개심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르완다 젊은이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들을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젊은이들이,
2만 원을 헌금하시면 4명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르완다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성경 기증을 위한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외환은행 630-008603-501	농협은행 355-0025-0990-53
수협은행 033-01-085327	우 체 국 011916-01-000076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